

# ‘목포시-신안 先통합론’ 반발 확산

## ■목포시 ‘무안반도 통합 용역’ 결과 발표

### 신안군·의회 “협의로도 없이 일방 발표...특별법 제정부터”

‘목포와 신안군(先) 통합’을 골자로 한 목포시의 무안반도 통합 용역결과에 대해 신안군민들과 군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가 최근 주최한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에 관한 연구용역발표회’에서는 무안반도 통합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무안군을 제외한 목포시·신안군의 선 통합론이 제기됐다.

목포대 용역팀은 서남권 광역도시 조성을 위해 1 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목포시와 신안군을 통합한 뒤 2010년에는 무안군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목포대 용역팀은 또 2013년까지 무안반도와 인

접한 영암·해남군까지 통합, 인구 50만명에 국내 최대 면적의 자치단체를 조성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용역결과에 대해 신안군민들과 군의회는 “신안군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 지난 2005년 신안군에 조성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지도읍과 압해면 출신 교회 목사들과 장로 등 특정 종교와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무안반도 통합의 지름길은 해당지역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이 기록권을 포기하고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무안반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남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무안반도 통합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지역 대표성이 없는 특정 종교인을 앞세워 마치 전체 군민들의 뜻인 양 통합 논의에 접근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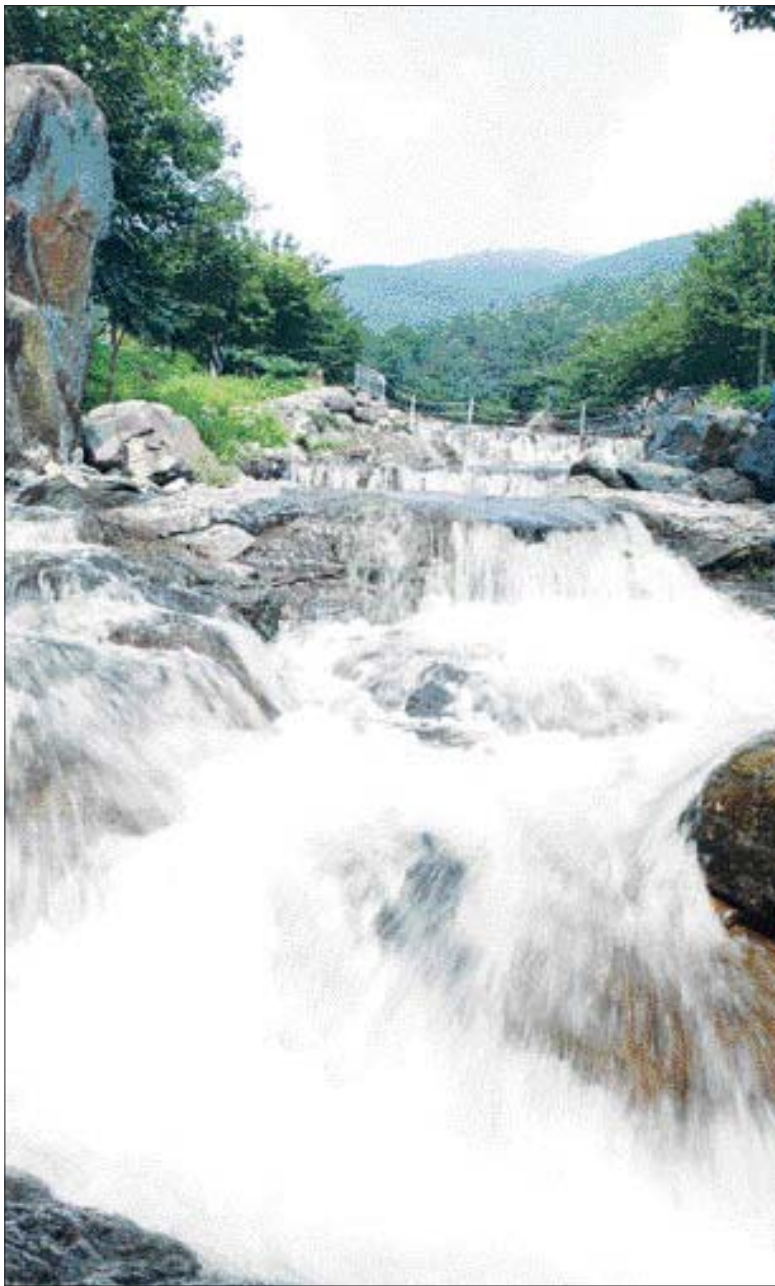
신안군의회 주장배 의장은 “지역 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목포시의 일방적인 발표는 신안군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통합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기존 정치인들이 기록권을 버려야 진정한 통합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다산 정약용 선생 가문 미공개 유물 41점 공개 조선 후기 개혁을 주도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 형제와 조카사위였던 황사영 등 다산가(茶山家)의 천주교 관련 미공개 유물 41점이 4일 강진구청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정약용 선생의 큰형인 정약중(1760-1801) 선생이 18세기 말 집필한 주교요지(主敎要旨)는 우리나라 말로 제작된 최초의 교리서로 부녀자나 어린이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집필됐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시원한 숲속의 쉼터’ 보성 제암산 휴양림



보성군 웅치면 제암산 휴양림 계곡에 더위를 식혀줄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다. 지난 96년 문을 연 제암산 휴양림은 200여 대의 주차공간과 가족단위로 야영할 수 있는 텐트장, 숲속의 집(콘도형) 6동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20여만명의 휴양객들이 찾고 있다. <보성군 제공>

## “물부족 사태 대비, 지하수 관리 총력”

### 전남도, 2010년까지 용역 착수

전남도가 물 부족 사태와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까지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각 지역별 지하수 부존량과 수질 상태, 앞으로의 사용예측량 등을 종합분석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수질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지하수 운영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국가 지하수 관측망 36곳이 운영되고 있고 영산강유역환

경청이 관리하는 오염 우려 지역 87곳과 전남도가 관리하는 일반 지역 110곳에 수질오염측정망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가 운영하는 수질측정망 110곳 중 10여곳만이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그나마도 보조지하수 관측망 역할만 하고 있어 수질과 수량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물 부족 사태 등에 대비한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체계를 갖출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채희중기자 chae@

## 담양문화원 ‘누정-담양누정기행’ 발간

담양문화원이 소쇄원과 식영정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지역 누정들을 집대성한 ‘누정-담양누정기행’을 발간했다.

담양문화원은 전남대 국문학과 김신중 교수 등과 함께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33개의 누정을 찾아낸 후 사진촬영, 원고집필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2년 만에 책을 내게 됐다.

담양문화원 문화총서 발간 사업의 첫 번째 결과물인 이 누정집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기행문 형태의 글들이 평이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 영광군 농수축산물 유통회사 만든다

### 郡, 태스크포스 구성 읍·면 순회 설명회

영광군이 지역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직거래를 통한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유통회사는 군비와 민자 등 최초 자본금 30억원이 투입되며, 군은 3년 뒤에 자본금 100억원에 매출액 1천억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관련 기관, 농·어·민, 농·수·축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각 읍·면에서 순회 설명회를 열어 유통회사 설립을 홍보했다.

영광군은 오는 25일까지 출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농산물 가공업체 운영자 모집

곡성군이 농산물 가공업체의 운영관리자를 공개 모집한다.

호남고속도로 곡성IC 진입로에 있는 가공업체는 3천300㎡ 부지에 건평 1천250㎡로 농산물의 단순가공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를 갖추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저온저장고, 냉동창고, 야채 세척기·절단기·탈수기, 소포장기, 방풍탑차 등이며 농산물 가공 유통 경험이 있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단체는 우대한다. 문의(061-360-8785) /곡성=장필수기자 bungy@



의 이해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장학기금 모금 운동에 학생들을 동참시켰다”며 “장학기금 모금운동은 장기적으로 안도교육을 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관내 유·초·중·고등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학기금 모금 운동을 벌여 520여만원의 장학기금을 모았다. /안도=정은조기자 ejchung@

## 장보고 장학기금 630만원 모금

### 안도교육청 관내 1,500명 참여

안도교육청(교육장 광영체)이 지난달 29일 장보고장학회 이사장인 김종식 군수에게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630여만원을 기탁했다.(사진)

이번 장보고 장학회 모금운동에서 교직원들은 1구좌(5천원) 이상, 유치원·초등·중등·고등학교생들은 최소 100원 이상 기탁했다. 특히 광영체 교육장이 50만원을 기탁했으며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5개교 학생 1천500여명이 참여했다.

광영체 교육장은 “장보고 장학회의 교육사업에 학부모

기장 전수교육 조교) ▲대한민국 전통 쪽업 기능 전수자 한광석 ▲별교 이을도랑 박노연 ▲청광도에 김기찬 씨의 다양한 작품이 선 보이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전통공예 장인들의 수준 높은 작품성을 홍보하고 예향 보성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 보성 전통공예작품 한자리에

### 10일까지 ‘공예공방’ 전시회

웅기·유기·천연염색 등 보성지역 전통공예에 장인 5명의 작품전시회가 오는 10일까지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공예공방에서 열리고 있다.

(사)남도 전통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유기장 한상춘(중요 무형문화재 제77호) ▲웅기장 이학수(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용

## 전북 5천만원어치 흙친 일당 셋 검거

### 완도해경, 40여일간 통신추적 등 과학적 수사 개가

야간에 남의 양식장에 침입, 수천만원 상당의 전복을 흙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경경찰서(서장 김두석)는 4일 약산면 해동리 해상 전복 양식장에서 선박 등을 이용해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전복 4천900여 마리를 흙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22)씨 등 3명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6월 27일 새벽 2시경 선박을 타고 침입,

해동리 마을 앞 800여m 해상에 위치한 김 모(62)씨 등 3곳의 가두리양식장에서 11~12cm 크기의 전복만을 집중적으로 골라 흙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전복이 자라는 생육 구조물(셀터)을 통째로 흙쳐가는 다른 절도범과 달리 가두리에서 다 자란 전복만을 손으로 떼내 선박에 옮겨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중 1명은 최 씨가 검거된 줄

모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달미가 잡혔다.

해경은 현장증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40일간 통신추적 등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일당 3명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씨 등은 생육 구조물을 통째로 흙칠 경우 피해자가 도난 사실을 바로 알게 되지만 전복만을 떼내면 뒤늦게 알게 되는 점을 노렸다”며 “여죄를 추궁하기 위해 이 일대 양식업자 등을 상대로 피해사실이 더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목포 최고를 찾습니다”

### 목포시, 가칭 ‘목포 기네스북’ 제작 위해

### 내달 4일까지 인물·행정 등 7개 분야 공모

목포시가 가칭 목포 기네스북 제작을 위해 ‘내가 목포 최고’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인물과 행정, 문화예술, 자연환경, 사회복지, 산업경제, 기타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오는 9월 4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다.

대상은 소장·보관하고 있는 자료나 기술이 목포에서 최초·최고

(最古)·최대·최대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목포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기획혁신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된 자료는 심사단의 검증(심사) 및 최종후 ‘목포 기네스북’에 수록된다.

또 분야별 ‘내가 목포 최고’ 기록자들에게는 10월께 인증서를 부여하고 지자체 행사 초청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목포시는 앞으로 매년 ‘내가 목포 최고’ 기록 및 자료를 수집·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 기네스북 발간으로 시민들에게 애郷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임흥순기자 lyc@



## 법원으로 떠나는 이색 문화 피서

### 장흥지원, 미술품 전시 눈길

콘크리트 일색인 법원 건물내에 국립현대미술관 화가들이 그린 미술품이 전시돼 민원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지원장 구회근) 1층 현관 벽면에는 국내 유명화가 홍지윤씨가 그린 300호크기의 ‘용서’라는 작품이 전시돼 있다. <사진> 법원 청사에 미술 작품이 전시된 것은 국내 중견화가들과 인연이 깊은 임수희 판사가 국립현대미술관과 장흥군이 공동 주관하는 ‘찾아가는 미술전시회’에 참여한 30여명의 화가들

을 장흥지원에 초청해 성사됐다.

구회근 지원장은 “이같은 예술 이벤트 행사가 법원과 일반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흥지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 최초로 배심원제 재판제도를 시행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회’는 국내 유명작가 36명이 장흥을 소재로 그린 87점의 그림을 선보이고 있다. 이 작품들은 최근 개관한 천관 문화관과 장흥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9월30일까지 전시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광양시 고철 20t 모아

### 장학금 1억원 조성

광양시가 고철을 모아 인재육성 장학기금 1억원을 마련했다.

광양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관공공사 현장과 관내 기업체 등에서 고철 200t을 수집, 1억원의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시는 고철모으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직자들이 헌신 수범해 고철수집의 날을 운영, 전체 수집량의 50%를 차지하는 고철 108t을 모았다. 특히 관내 기업체 등에서 사업장내에 방치되어 있는 고철 40t을 기탁하기도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고철 기탁자에게 기부금영수증과 장학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며 “영농철이 끝나는 10월말께 한차례 더 고철수집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